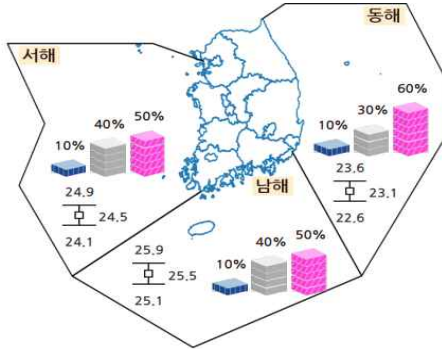


2026년 8월 해양기상기후정보

2026. 8. 5. 발표

● 2026년 8월 해수면 온도 전망(7.23.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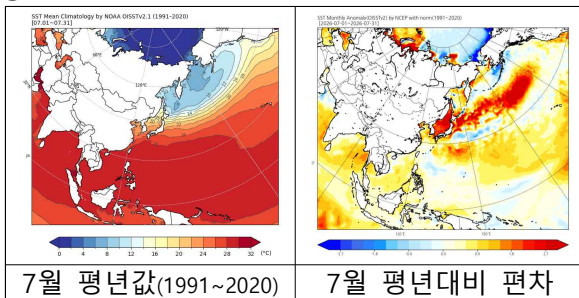


※ 평년범위는 과거 30년(1991~2020년)간 연도별 30개의 평균값 중 대략적으로 33.33%~66.67%에 해당하는 값
<확률별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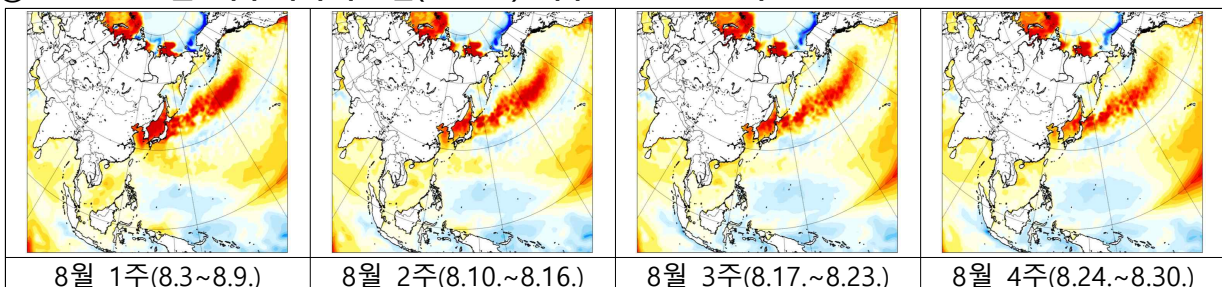
확률 (낮음: 비슷: 높음)	해설
높음 확률이 50% 이상 (낮음(20):비슷(40):높음(40))	평년보다 높겠음
비슷 확률이 50%이상 또는 (낮음(30):비슷(40):높음(30))	평년과 비슷하겠음
낮음 확률이 50% 이상 (낮음(40):비슷(40):높음(20))	평년보다 낮겠음

● 해수면 온도 현황 및 예측자료

① 2026년 7월 해수면 온도 현황(NOAA OISSTv21)



② 2026년 8월 기후예측시스템(GloSea6) 해수면 온도 편차²⁾



최고 조위

지점	일자	조위값
인천	8월 14일	958cm
완도	8월 13일	405cm
포항	8월 13일	46cm

안전

해양조난사고 현황

- 8월 해양 사고는 2,025척(9.8%), 19명(5.4%) 발생(최근 5년간, '21년~25년).
- 사고유형은 침수 7.7%(156척) > 충돌 6.7%(137척) > 좌초 5%(102척) > 화재 3.7%(76척) 순으로 많음
- 사고원인은 정비불량 38.3%(776척) > 운항안전 부주의 34.3%(695척) > 관리소홀 11.6%(235척) > 연료고갈 4%(83척) 등 순으로 발생

해양사고 예방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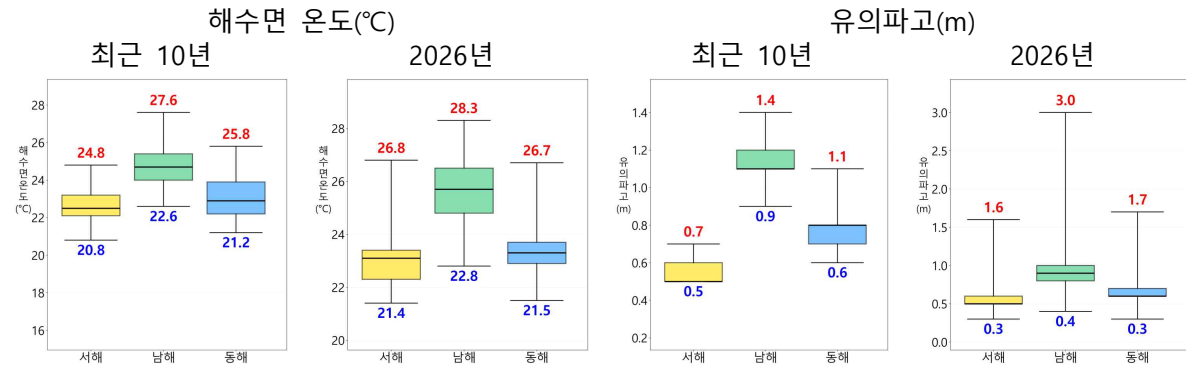
- 축전지(배터리)·전선·냉각계통 등 상태 점검 및 필요시 전문가 등의 예방 정비 시행, 항만 내 입항선의 출항선 피항의무기초 항법 준수, 항상 철저한 경계 및 안전한 속력 준수, 태풍 및 풍랑특보 발효·예상 시 조기 대응 중요

어항

- 전갱이, 살오징어, 멸치, 갈치, 참조기는 전.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고등어 평년 대비 양호, 삼치 전년 대비 양호, 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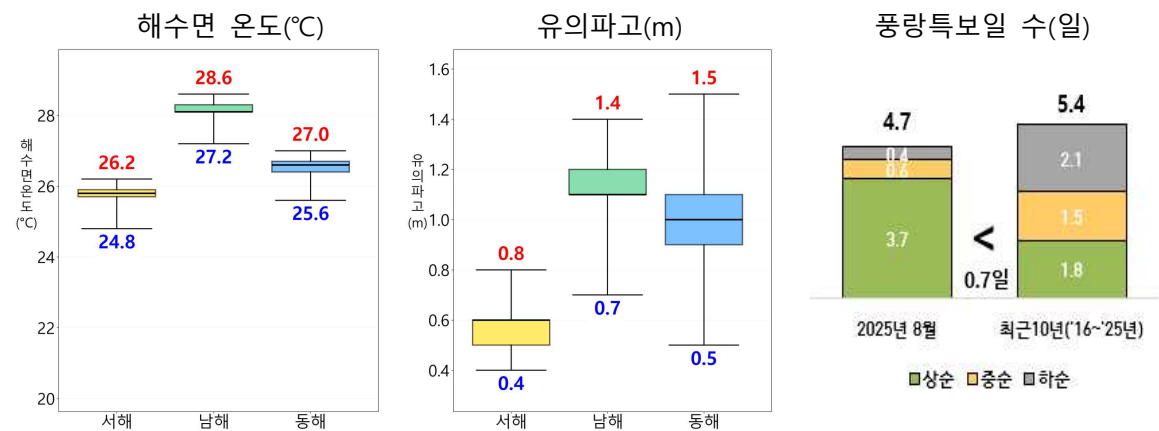
1) OISSTv2: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version 2, 최적 내삽(버전2)된 해수면 온도
2) 편차: 예측값에서 기후예측모델의 과거 적분기간(1993~2022년) 동안의 평균값을 뺀 값

● 7월 분석(최근 10년('16~'25년) 및 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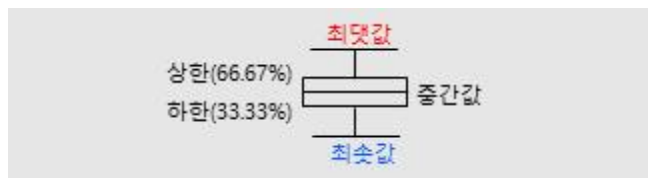


	해수면 온도(°C)						유의파고(m)					
	최근 10년			2026년 7월			최근 10년			2026년 7월		
해역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평균값	22.7	24.7	23.2	23.4	25.7	23.7	0.6	1.1	0.8	0.6	1.1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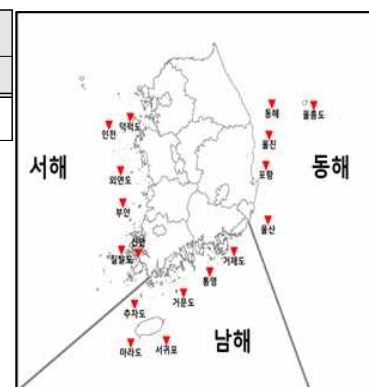
● 8월 해양기후 특성(최근 10년('16~'25년))



	해수면 온도(°C)			유의파고(m)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평균값	25.7	28.0	26.5	0.6	1.1	1.0



* 박스범위는 33.33%~66.67%에 해당하는 값으로, 국가승인통계 지점 해양기상부이 17개소를 활용함



[해양기상부이 지점 위치]

자료 협조: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경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양기상기후정보

유의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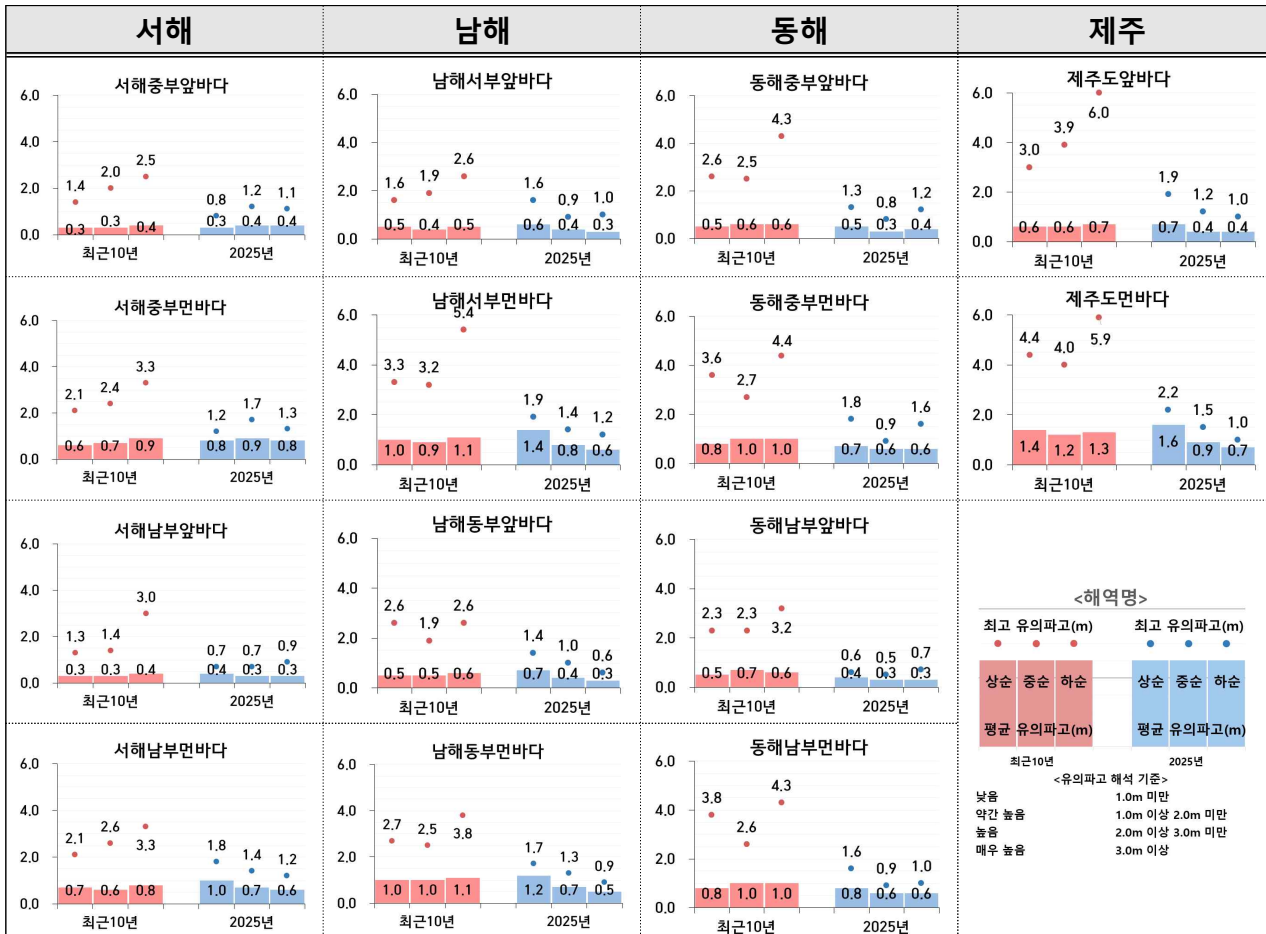
8월 해역별 및 순별 평균 유의파고(최근 10년('16~'25년))

해역	앞바다	먼바다	(단위: m)
서 해	0.4m (▲ 0.1m)	0.7m (▼ 0.1m)	
남 해	0.6m (■ 0.0m)	1.0m (▼ 0.1m)	
동 해	0.6m (▲ 0.1m)	1.0m (▲ 0.2m)	
제주도	0.7m (■ 0.0m)	1.3m (■ 0.0m)	

▲ 전월대비 높음, ▼ 전월대비 낮음, ■ 전월과 비슷

해역	앞바다			먼바다			(단위: m)
	상순	중순	하순	상순	중순	하순	
서 해	0.3	0.3	0.4	0.7	0.7	0.9	
남 해	0.5	0.5	0.6	1.0	1.0	1.1	
동 해	0.5	0.7	0.6	0.8	1.0	1.0	
제주도	0.6	0.6	0.7	1.4	1.2	1.3	

8월 평균 및 최고 유의파고(최근 10년('16~'25년) 및 지난해('25년))



■ 관측 이래 8월 해역별 평균 유의파고 극값 순위(단위:m)

해역	지점	1위		지점	2위		지점	3위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서해	외연도	'16.8.31.	3.3 (4.4)	부안	'16.8.31.	3.3 (4.3)	칠발도	'20.8.26.	3.1 (5.5)
남해	거문도	'18.8.23.	5.4 (6.2)	거문도	'20.8.26.	4.4 (5.1)	추자도	'18.8.23.	4.3 (5.8)
동해	동해	'15.8.26.	5.6 (7.8)	포항	'15.8.25.	5.1 (7.7)	울릉도	'15.8.25.	4.7 (8.3)
제주도	중문	'18.8.23.	6.0 (10.1)	서귀포	'18.8.23.	5.9 (8.2)	마라도	'18.8.23.	5.9 (8.0)

■ 8월 해역별 평균 유의파고 분포(최근 10년('16~'25년))

- 최근 10년간 앞바다에서 1m 미만이 89.8%, 2m 이상이 1.0%로 나타났고, 먼바다에서 1m 미만이 62.3%, 2m 이상이 5.8%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해의 경우 앞바다에서 1m 미만이 95.9%, 2m 이상이 0.0%로 나타났고, 먼바다에서는 1m 미만이 71.8%, 2m 이상이 0.9%로 나타났습니다.
- 2m 이상 유의파고 분포 최다 해역은 최근 10년간의 경우 제주도 먼바다(13.4%)였고, 지난해의 경우 제주도 먼바다(6.6%)였습니다.

해역	앞바다		먼바다	
	1m 미만	2m 이상	1m 미만	2m 이상
서해	96.8%	0.3%	77.8%	1.9%
남해	89.2%	0.6%	55.7%	6.3%
동해	83.5%	1.7%	62.9%	6.2%
제주도	82.6%	2.3%	35.9%	13.4%

※ 파고 기준: 낮음 1.0m 미만, 약간 높음 1.0~2.0m, 높음 2.0~3.0m, 매우 높음 3.0m 이상

■ 8월 평균 유의파고 분포(최근 10년('16~'25년) 및 지난해('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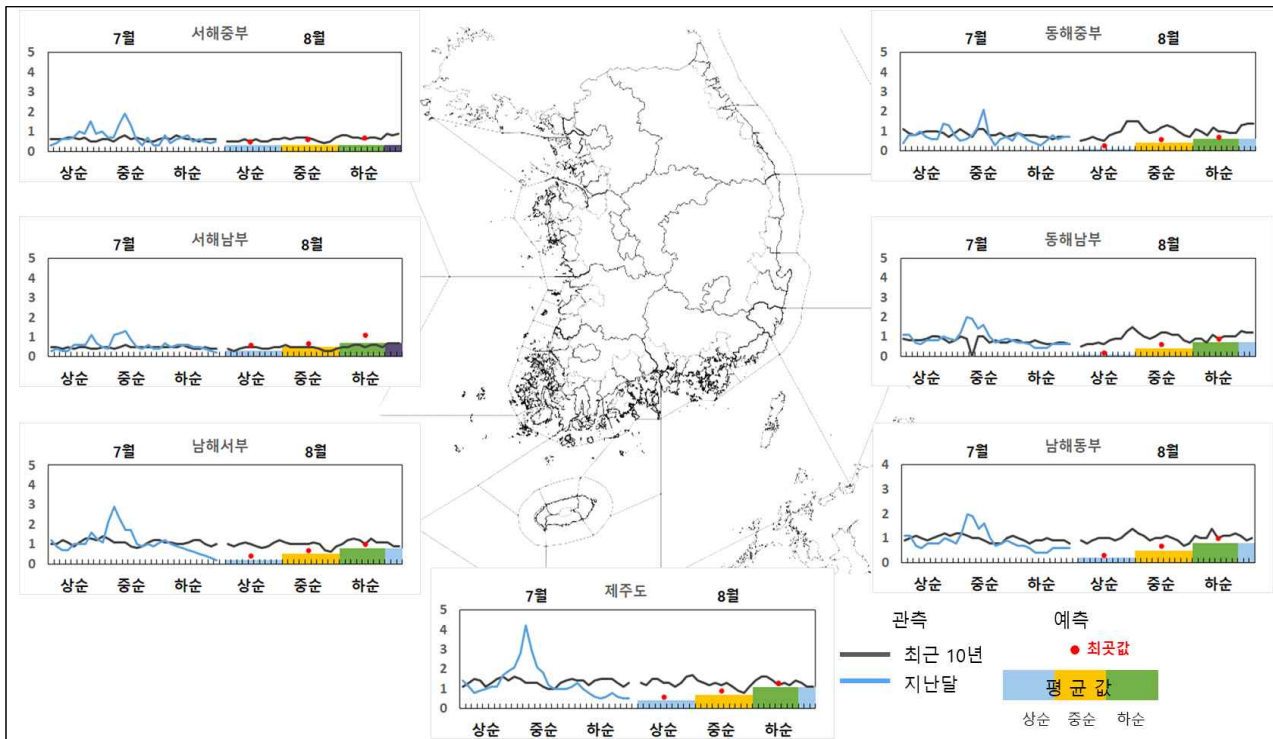
해역	앞바다	먼바다	지점
전해상			
서해중부			

해역	앞바다	먼바다	지점
서해남부			
남해서부			
남해동부			
동해남부			
동해중부			
제주도			
최근 10년간 <1.0m 1.0 ~ 1.9m 2.0 ~ 2.9m 3.0 ~ 4.9m 5.0m ≧ 2025년 <1.0m 1.0 ~ 1.9m 2.0 ~ 2.9m 3.0 ~ 4.9m 5.0m ≧			

해역	앞바다	먼바다
서해중부	신진도, 삽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덕적도, 천수만, 안면도	외연도, 인천
서해남부	진도, 군산, 영광, 신안, 대치마도, 비안도	칠발도, 맹골수도, 부안
남해서부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추자도(파고부이)	거문도, 추자도(부이)
남해동부	두미도, 장안, 해금강, 오륙도, 대대포, 한산도, 잠도, 소매물도	거제도, 통영
동해중부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맹방	동해, 독도, 울릉도
동해남부	후포, 간절곶, 월포	포항, 울산, 울진
제주도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협재, 김녕	마라도, 서귀포

[참고] 유의파고 통계 지점: 해양기상부이 및 파고부이 지점

유의파고 관측 및 예측 시계열



< 유의파고 최근 10년('16~'25년) 및 '26년 7월 관측과 8월 예측 >

- ✓ 유의파고는 해양기상부이와 파고부이에서 관측한 일 평균 유의파고를 사용하였으며, 최근 10년(—)은 '16~'25년 관측값의 일 평균, 지난달(—)은 '26년 7월(1일~31일) 관측값의 일 평균임
- ✓ 파고 예측은 수치모델에서 산출된 해역별 평균 예측값을 사용함
- ✓ 파고 예측정보는 해역별 평균 예측값으로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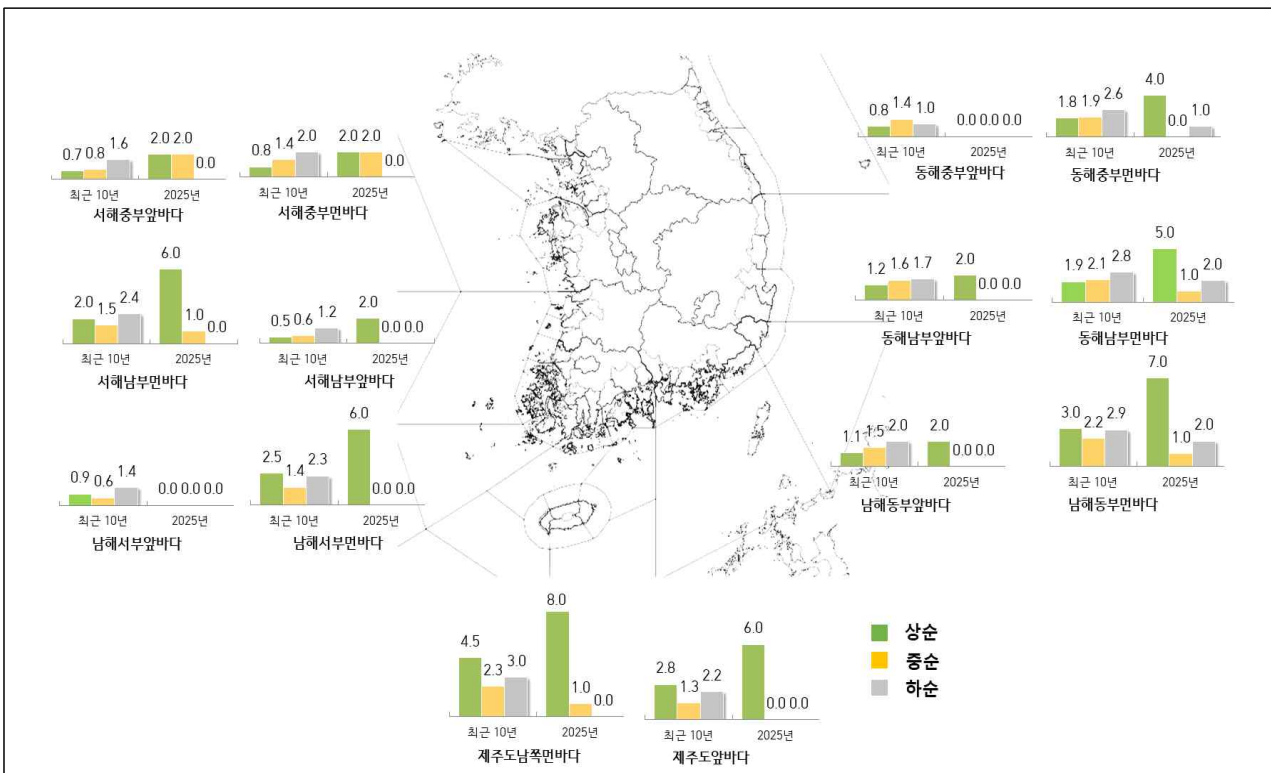
해역	해양기상부이
서해중부	외연도, 덕적도, 인천
서해남부	칠발도, 신안, 부안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부이)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동해중부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참고] 통계 지점: 해양기상부이 지점

풍랑특보일 수

■ 8월 풍랑특보일 수(최근 10년('16~'25년) 및 지난해('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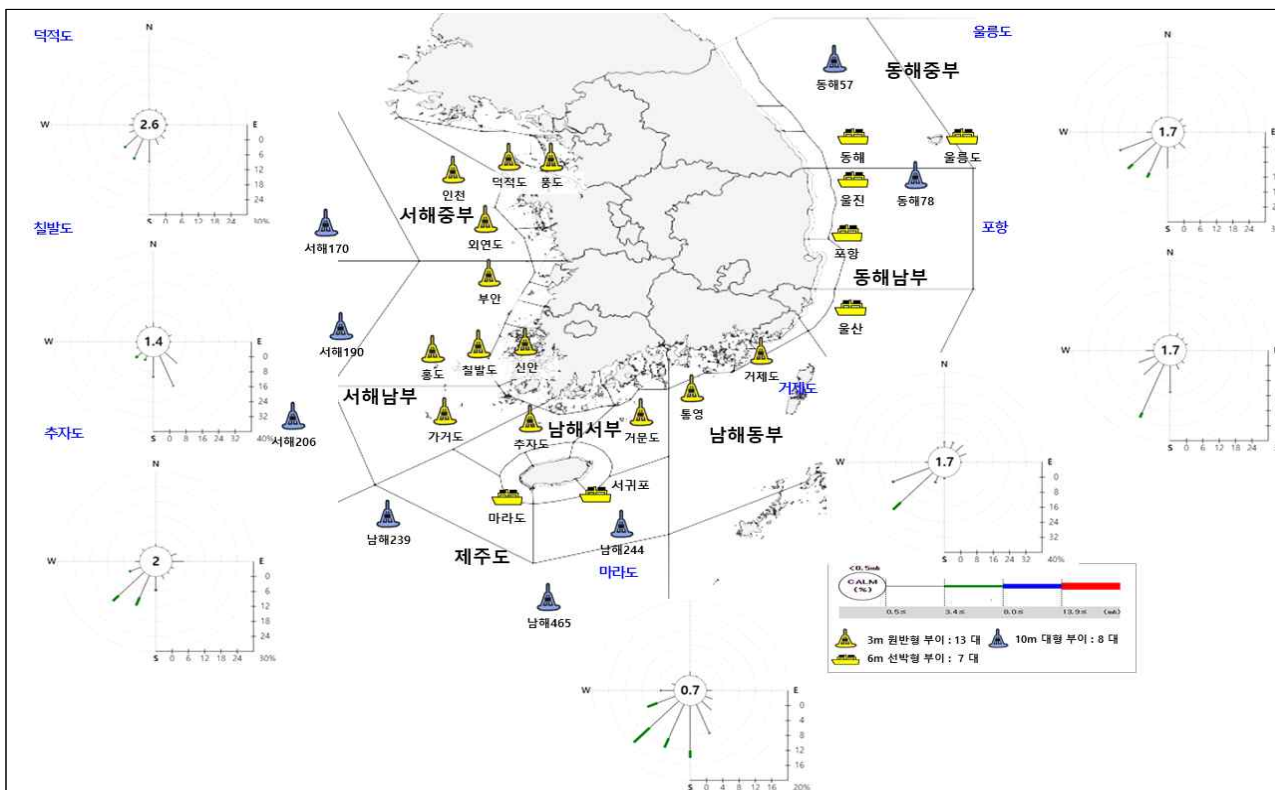
- 8월 풍랑특보 발표일 수는 최근 10년간 8월 평균 5.4일로 전월 대비 0.7일 많았고, 지난해에는 4.7일로 전월 대비 0.3일 많았습니다.
- 8월 순별 풍랑특보 발표일 수는 최근 10년간 (상순) 1.8일, (중순) 1.5일, (하순) 2.1일
지난해에는 (상순) 3.7일, (중순) 0.6일, (하순) 0.4일로 나타났습니다.
- 8월 풍랑특보일 수 최다 / 최소 해역
(최근 10년) 제주도남쪽면바다가 9.8일로 가장 많았고,
서해남부앞바다가 2.3일로 가장 적었습니다
(지 난 해) 남해동부면바다가 10.0일로 가장 많았고,
남해서부앞바다와 동해중부앞바다가 0.0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해상풍

8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바람장미(지난해('25년))

- 서해상은 남~남남서풍 계열, 남해와 동해상은 남서풍 계열, 제주도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습니다.
- 전 해상 풍속은 3.4m/s 미만이 37.6%, 3.4~7.9m/s가 53.2%, 8.0m/s 이상이 9.1%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 풍속분포 최다 해역
(3.4m/s 미만) 남해서부가 47.5%로 가장 많았습니다.
(8.0m/s 이상) 서해남부가 13.0%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25년) 8월 해역별 풍속 계급별 분포

해역	주풍계	풍속(m/s), 분포(%)				
		Calm	0.5~3.3	3.4~7.9	8.0~13.8	13.9≤
서해중부	SSW	1.9	37.6	53.2	7.3	0.0
서해남부	S	1.2	31.9	53.9	13.0	0.0
남해서부	SW	1.8	45.7	44.7	7.8	0.0
남해동부	SW	1.4	33.7	57.2	7.7	0.0
동해중부	SSW	1.8	37.7	55.7	5.0	0.0
동해남부	SW	1.2	32.6	53.4	12.8	0.0
제주도	S	1.3	33.7	54.8	10.3	0.0
전 해상		1.5	36.1	53.2	9.1	0.0

☞ 지난해('25년) 8월 해양기상부이 지점별 해상풍은 부록 1. 참고

해수면 온도

7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양기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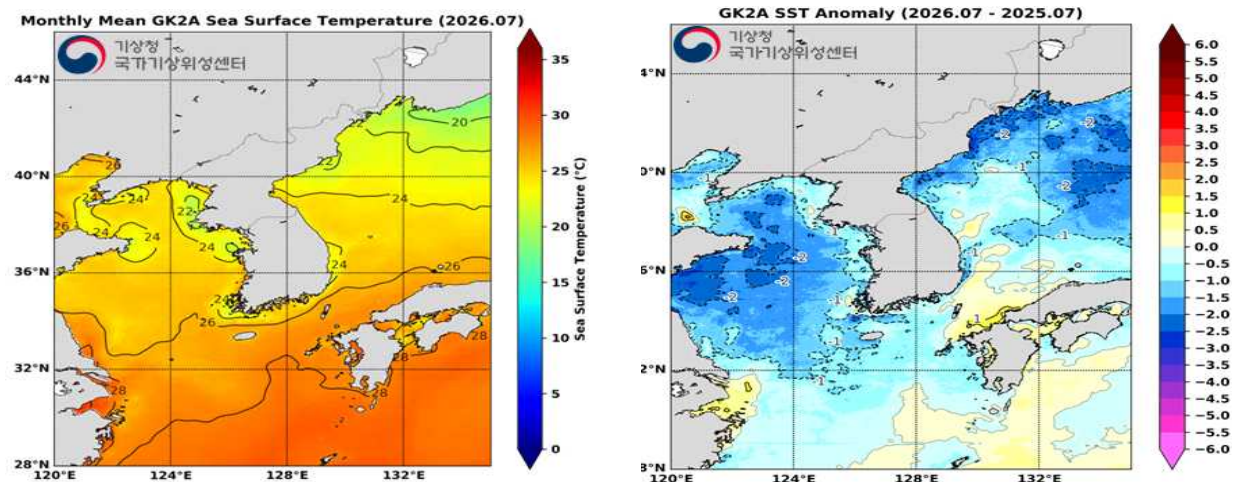
- (주요 기후특성) 올해 7월 우리나라 주변 해역 평균 해수면 온도는 24.3℃로 작년보다 1.0℃ 낮았음

※ 국가승인통계 기상청 해양기상부이 지점 중 10년 이상 관측자료가 확보된 17개 지점 활용



< 해역별 2025년·2026년 7월 일평균 해수면 온도 시계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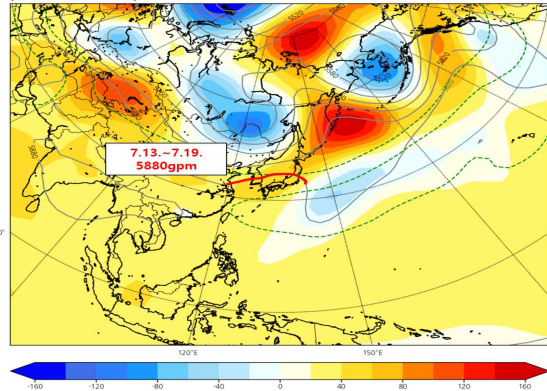
- 7월 해수면 온도 분포(기상청 천리안위성 2A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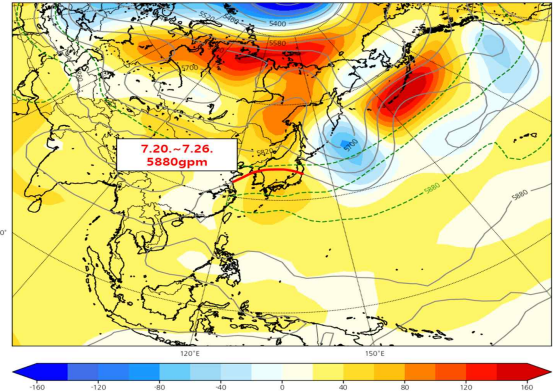
< 2026년 7월 평균 해수면 온도(좌), 및 전년 대비 편차 분포도(우) >

- (기후학적 원인) 작년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6월 말부터 이르게 확장하면서 7월 상순부터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져 해수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했지만, 올해는 상·중순까지 정체전선 등의 영향을 자주 받아 해수면 온도가 작년보다 낮았음. 이후 하순에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 남동쪽에서 확장하면서 맑은 날씨가 나타나 서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해수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했으나, 상승 시점이 작년보다 늦어 7월 평균은 작년보다 낮게 나타났음. 특히 동해에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에 따른 연안 용승이 더해져 해수면 온도 상승이 작년에 비해 더뎠음

500hPa GPH(m) Mean anomaly by NCEP CORE with norm(199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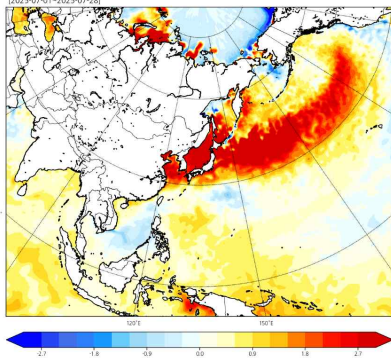


500hPa GPH(m) Mean anomaly by NCEP CORE with norm(199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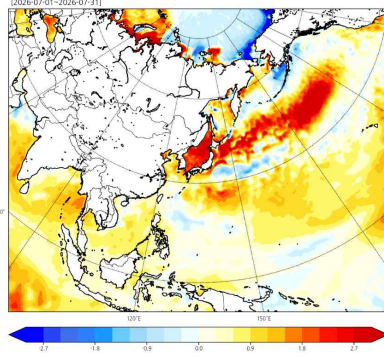


< 2026년 7월 13~19일(좌), 7월 20~26일(우) 500hPa 지위고도 편차 분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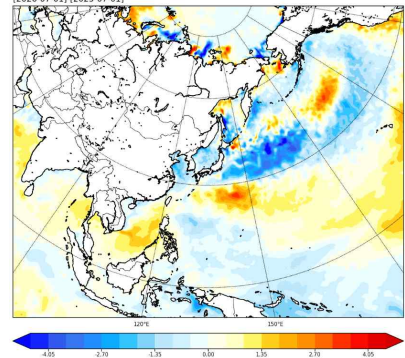
SST Monthly Anomaly(OISSTv2) by NCEP R1 with norm(1991~2020)



SST Monthly Anomaly(OISSTv2) by NCEP with norm(1991~2020)



OISST DIFF



< 평년(1991~2020년) 대비 2025년(좌)·2026년(중) 7월 해수면 온도 편차 및 2025년 대비 2026년 편차 분포도(우) >

※ 출처: NOAA OISSTv2

※ 해역별 평균 해수면 온도 평년(1991~2020) 대비 편차(미국 해양대기청(NOAA) OISSTv2 활용):
서해(중남부) 23.2°C(+1.3°C), 남해(서동부·제주도) 24.2°C(+0.9°C), 동해(중남부) 22.4°C(+1.8°C)

7월 상세해역 순별 평균 해수면 온도

해역 ³⁾	7월 해수면 온도(°C)					
	상 순		중 순		하 순	
	최근 10년 평균 대비 편차	작년 대비 편차	최근 10년 평균 대비 편차	작년 대비 편차	최근 10년 평균 대비 편차	작년 대비 편차
서해중부	22.6 ▲1.0	▼1.1	22.9 ■0.0	▼1.3	24.9 ▲0.5	▼1.5
서해남부	20.9 ▼0.4	▼2.2	23.0 ▲0.7	■0.0	26.1 ▲2.4	▲1.0
동해중부	23.0 ▲0.8	▼1.3	23.8 ▲0.6	▼0.1	25.7 ▲0.6	▼0.5
동해남부	22.6 ▲1.0	▼0.3	22.6 ▼0.1	▼0.9	24.9 ▲0.2	▼1.8
남해서부	23.1 ▲0.2	▼2.9	24.8 ▲0.7	▼1.2	27.6 ▲1.5	▼1.0
남해동부	23.7 ▲1.3	■0.0	25.5 ▲2.1	▲0.4	26.2 ▲0.7	▼2.0
제주도	24.1 ▼0.7	▼3.9	26.5 ▲0.3	▼0.1	29.2 ▲1.6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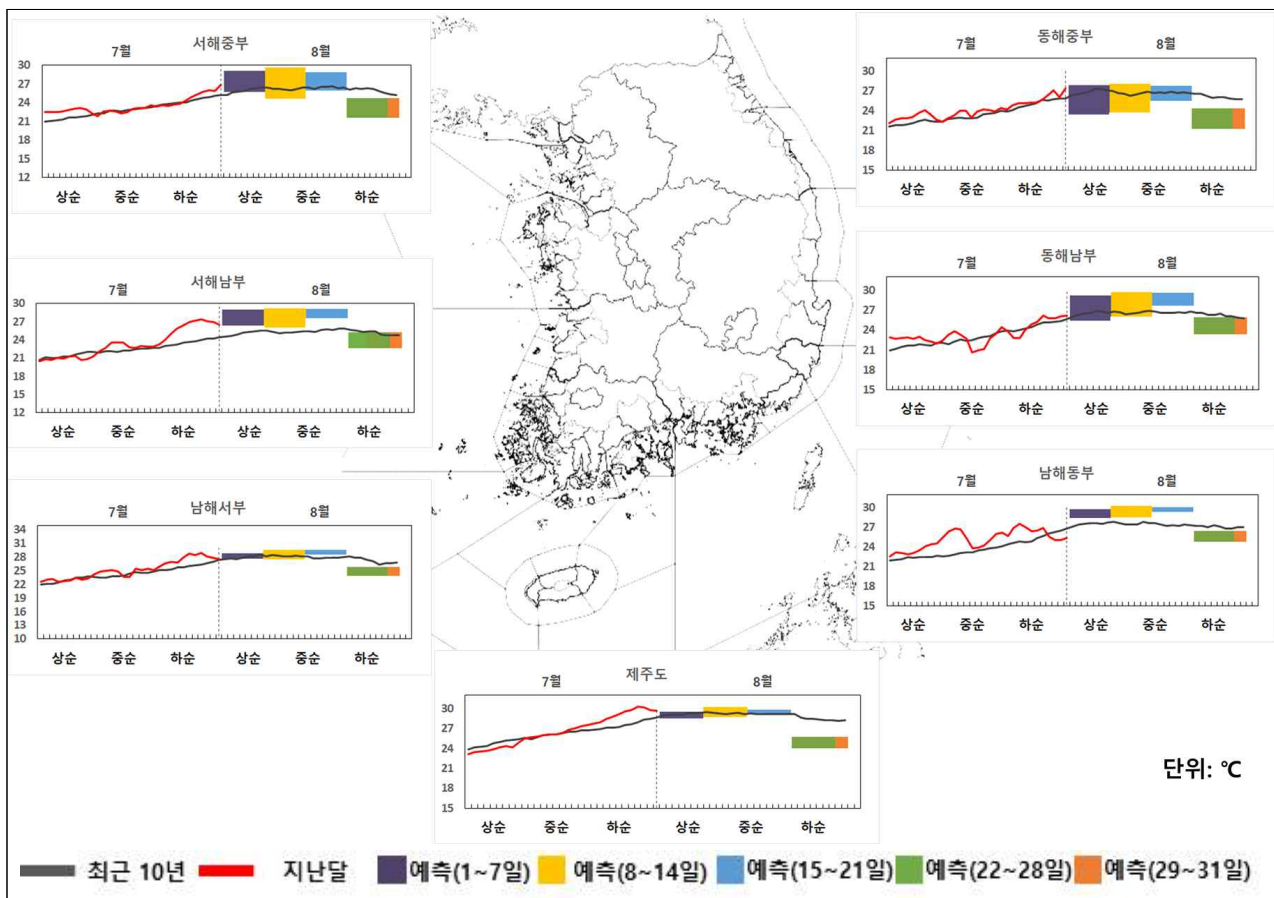
▲ 최근 10년 대비 높음, ▼ 최근 10년 대비 낮음, ■ 최근 10년과 비슷

8월 해역별 평균 해수면 온도(최근 10년('16~'25년))

해역	해수면 온도(°C)
서해중부	26.1 (▲3.1)
서해남부	25.3 (▲2.8)
동해중부	26.6 (▲3.1)
동해남부	26.5 (▲3.4)
남해서부	27.8 (▲3.4)
남해동부	27.3 (▲3.5)
제주도	29.0 (▲2.7)

▲ 전월(최근 10년)대비 높음, ▼ 전월(최근 10년) 대비 낮음, ■ 전월(최근 10년)과 비슷

해수면 온도 관측 및 예측 시계열



< 해수면 온도 최근 10년('16~'25년) 및 '26년 7월 관측과 8월 예측 >

- ✓ 해수면 온도는 해양기상부이에서 관측한 정시 수온을 사용하였으며, 최근 10년(—)은 최근 '16~'25년 관측값의 일 평균, 지난달(—)은 '26년 7월(1일~31일)의 관측값의 일 평균임
- ✓ 해수면 온도 예측은 전지구 기후예측시스템에서 산출된 해역별 평균 예측값으로,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서해중부) 외연도, 덕적도, 인천 (서해남부) 칠발도, 신안, 부안,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동해중부)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해양조석정보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 8월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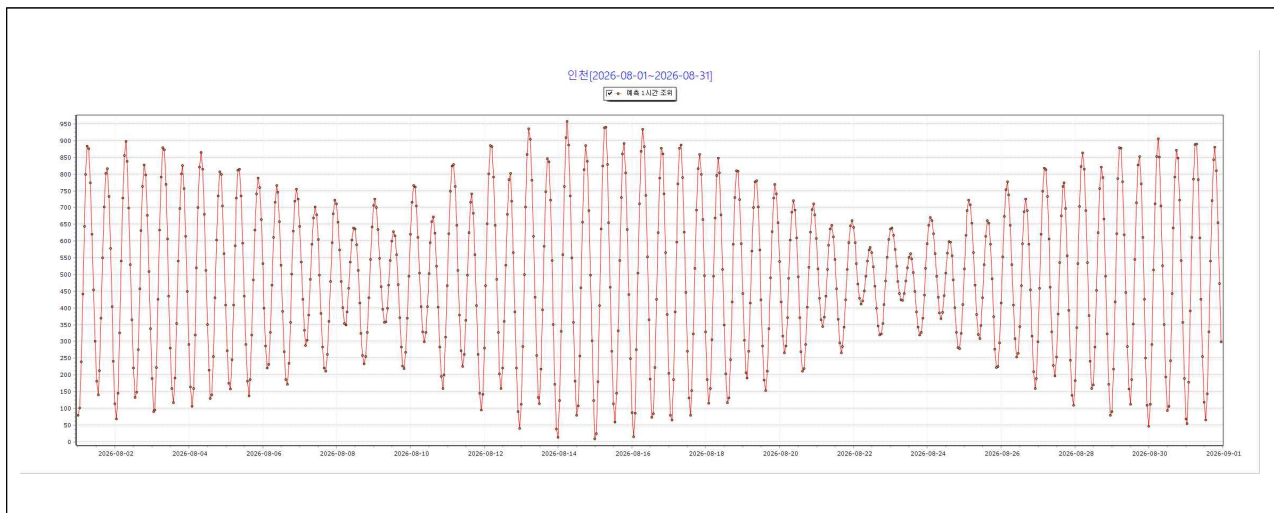
서해안의 인천은 8월 14일에 958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8월 13일에 405cm, 동해안의 포항은 8월 13일에 46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 8월 지역별 고극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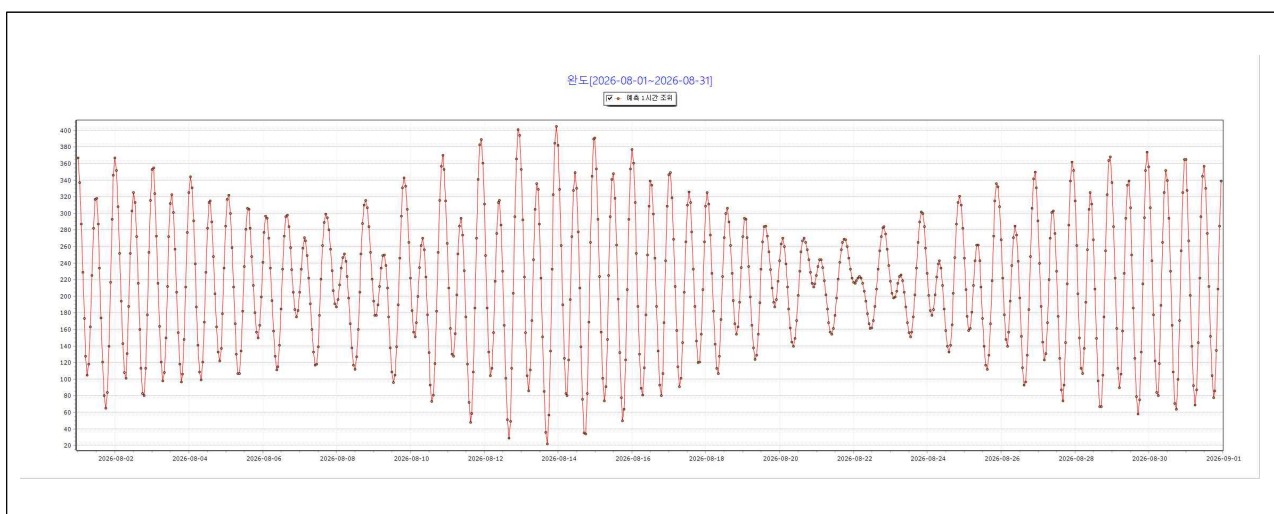
해역	지역	대조기(망, 8.1.)		대조기(삭, 8.13.~16.)		대조기(망, 8.28.~31.)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서해안	인천	8.1 06:24	893	8.14 05:54	958	8.30 06:00	906
	안흥	8.1 05:32	667	8.14 04:56	714	8.30 05:03	678
	군산	8.1 04:50	696	8.14 04:13	746	8.30 04:22	699
	목포	8.1 04:02	465	8.14 03:22	516	8.30 03:31	461
남해안	제주	8.1 00:18	280	8.13 23:36	304	8.29 23:39	282
	완도	8.1 11:32	322	8.13 22:57	405	8.29 23:02	374
	마산	8.1 22:48	189	8.13 21:46	220	8.29 21:52	197
	부산	8.1 22:11	133	8.13 21:09	146	8.29 21:16 8.30 21:43	137
동해안	포항	8.1 16:49	45	8.13 15:06	46	8.28 15:24 8.29 16:07	39
	속초	8.1 16:18	47	8.13 14:54	51	8.28 14:49	46
	울릉도	8.1 15:51	37	8.13 14:21	40	8.28 14:28	33

☞ 2026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와 ARS(1588-98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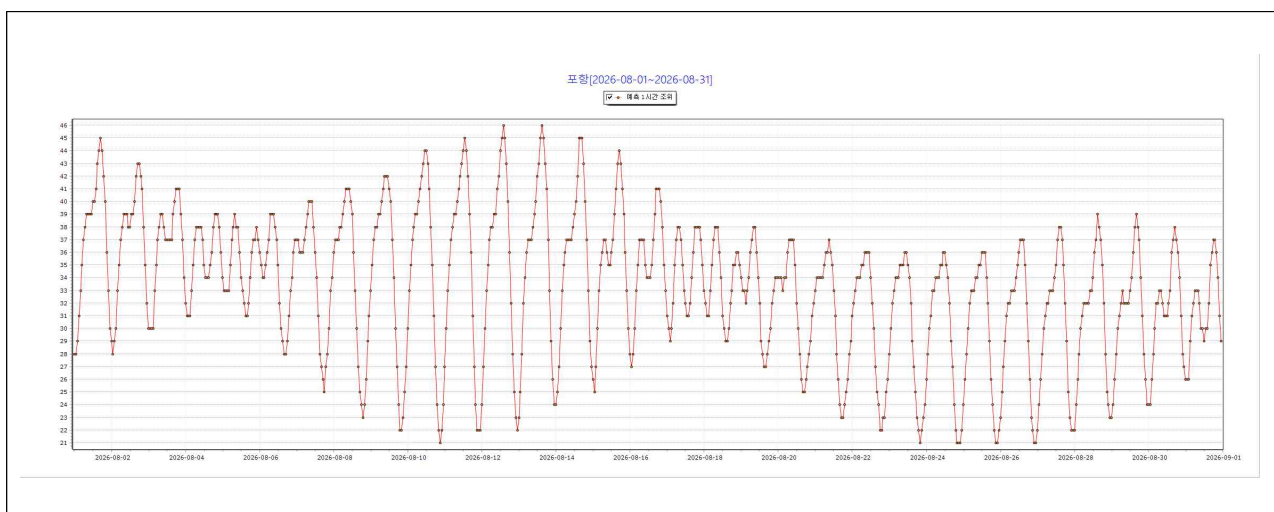
○ 8월 지역별 조위 시계열



< 2026년 8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



< 2026년 8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



< 2026년 8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

해양안전정보

해상조난사고 현황

제공: 해양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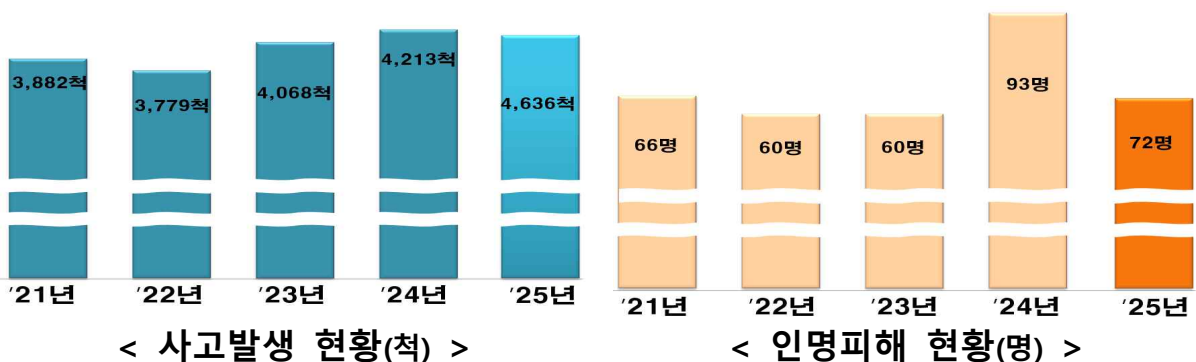
○ 해상조난사고 현황(8월)

- **(총 괄)** 최근 5년간 20,578척의 선박사고와 35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그중 8월에는 2,025척(9.8%), 19명(5.4%)이 발생하였음
- **(선종별)** 어선(낚시) 56.5%(어선 977척낚시 169척) > 레저선박 26.3%(533척) > 화물선(유조선 포함) 5.8%(118척) > 예부선 5.6%(114척) 등 순 발생
- **(유형별)** 기관손상 등 단순사고 74%(1,499척)*를 제외, 6대사고 중 침수 7.7%(156척) > 충돌 6.7%(137척) > 좌초 5%(102척) > 화재 3.7%(76척) 등 순
* 기관손상, 추진기손상, 키 손상, 운항저해, 부유물감김, 방향상실, 작업 중 인명사상 등
- **(원인별)** 사고 원인으로는 정비불량 38.3%(776척) > 운항·안전부주의 34.3%(695척) > 관리소홀 11.6%(235척) > 연료고갈 4%(83척) 등 순 발생

○ 해상조난사고 통계('21년~'25년)

- 최근 5년간 20,578척(연평균 4,115척)의 선박사고가 발생하였고, 발생인원 113,178명 중 351명(사망 250명, 실종 10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구 분	발 생		구 조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계	사 망	실 종
계	20,578	113,178	20,191	112,827	351	250	101
2025년	4,636	26,466	4,558	26,394	72	52	20
2024년	4,213	23,840	4,155	23,747	93	62	31
2023년	4,068	21,666	3,990	21,606	60	47	13
2022년	3,779	21,032	3,709	20,972	60	46	14
2021년	3,882	20,174	3,779	20,108	66	43	23
평 균	4,115	22,635	4,038	22,565	70	5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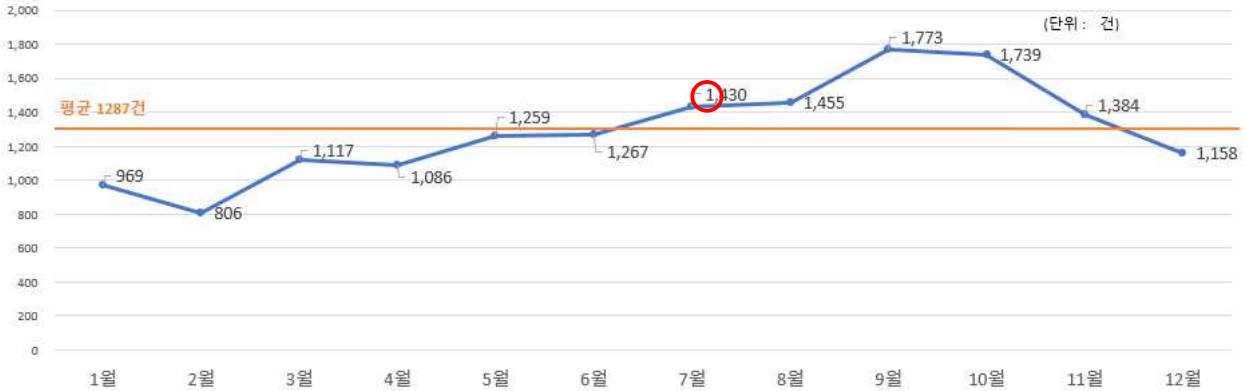


해양사고 예방정보

제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최근 5년간(2021~2025) 8월 중 해양사고 현황

○ (현황) 최근 5년간 8월 누적 해양사고는 총 1,455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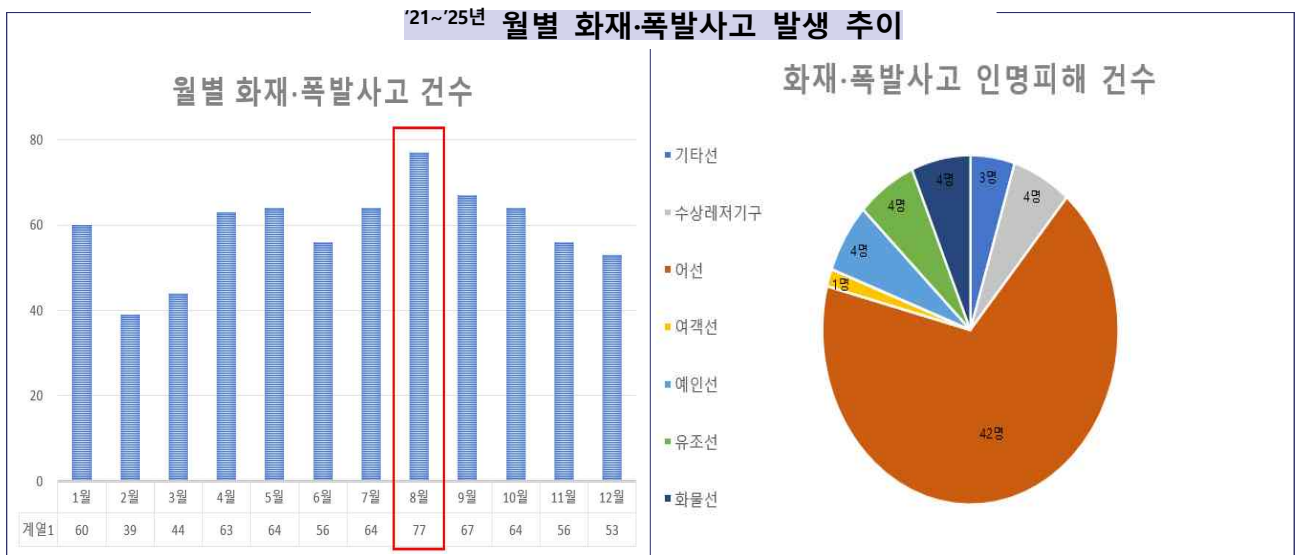
- (사고유형) 주요사고*는 충돌 111건(7.6%), 화재·폭발 77건(5.3%), 안전 사고 72건(4.9%), 전복 42건(2.9%), 침몰 26건(1.8%) 순 발생

* 주요 해양사고는 인명피해 발생위험이 높은 충돌, 전복, 침몰, 화재·폭발 및 안전사고를 의미

** 단순 해양사고는 기관손상 444건(30.5%), 부유물감김 153건(10.5%), 침수 128건(8.8%), 좌초 93건(6.4%) 등 순

○ 8월은 연중 가장 많은 화재·폭발사고(77건, 월 평균 59건)가 발생하는 시기이며, 최근 5년간 동 사고로 인명피해(부상·사망·실종)는 총 62명

- (발생원인) 주기관 주요 전선 단락, 축전지 노후화, 기관실 내부 인화성 물질(기름 걸레 등) 취급 부주의 등에 의하여 사고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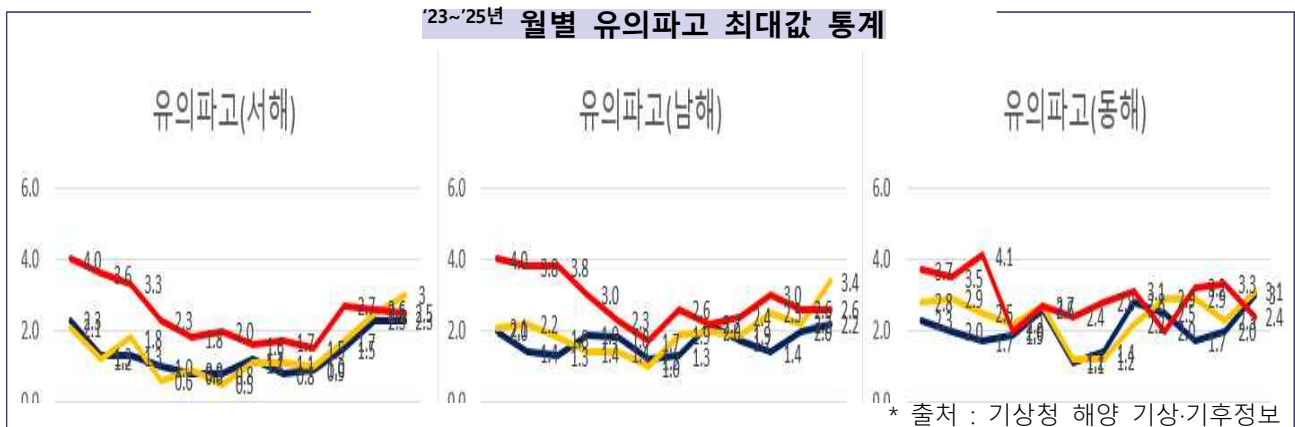
□ 8월 주요사고 특성

- 하계 휴가 성수기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의한 **해상교통량 증가**와 연중 가장 많은 태풍이 국내로 내습하여 주요사고 위험이 급등하는 시기

□ 해양사고 예방대책

- (화재·폭발) 선박 운항자의 시동 전 충분한 선내 환기 후 축전지(배터리)·전선·냉각계통 등 상태 점검 및 필요시 전문가 등의 예방 정비 시행
- (항행안전) 항만 내 입항선의 출항선 피항의무·좌현 대 좌현 통항 등 기초 항법 준수, 항상 철저한 경계 및 안전한 속력 준수
- (해양기상) 태풍 및 풍랑특보 발효·예상 시 조기 대응*이 중요하며, 동해해역은 3미터 이상 높은 유의파고 발생 가능 → 기상 확인 생활화 중요

* 계류줄 상태 확인·보강, 이동물 고박, 수밀 설비 점검, 비상근무자 배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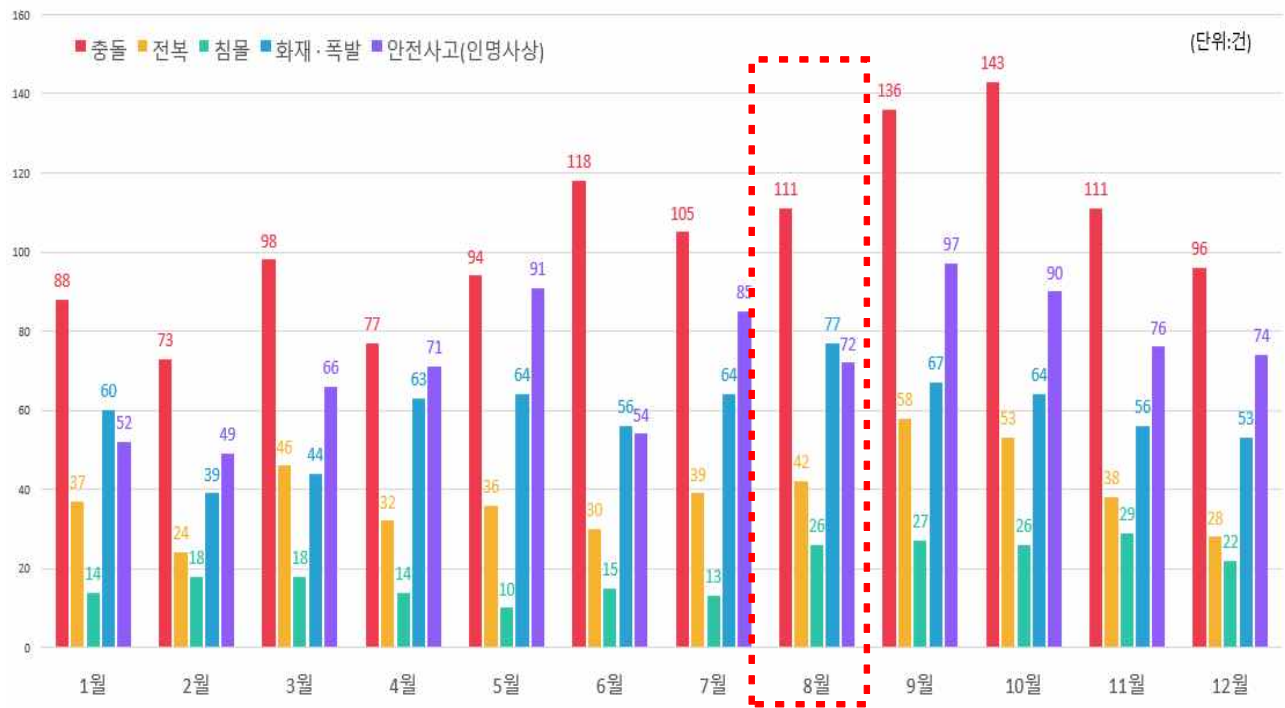


연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2023	1.2	1.3	1.4	0.8	2.2	2.8	0.9	1.7	2.5	1.5	1.4	1.7	2.3	2.0	2.0	2.3	2.2	3.0
2024	1.1	1.9	1.2	1.1	2.0	2.2	1.0	1.9	2.9	1.7	2.5	2.9	2.5	2.2	2.3	3.0	3.4	3.1
2025	1.6	2.6	2.8	1.7	2.2	3.1	1.5	2.4	2.0	2.7	3.0	3.2	2.6	2.6	3.3	3.1	3.5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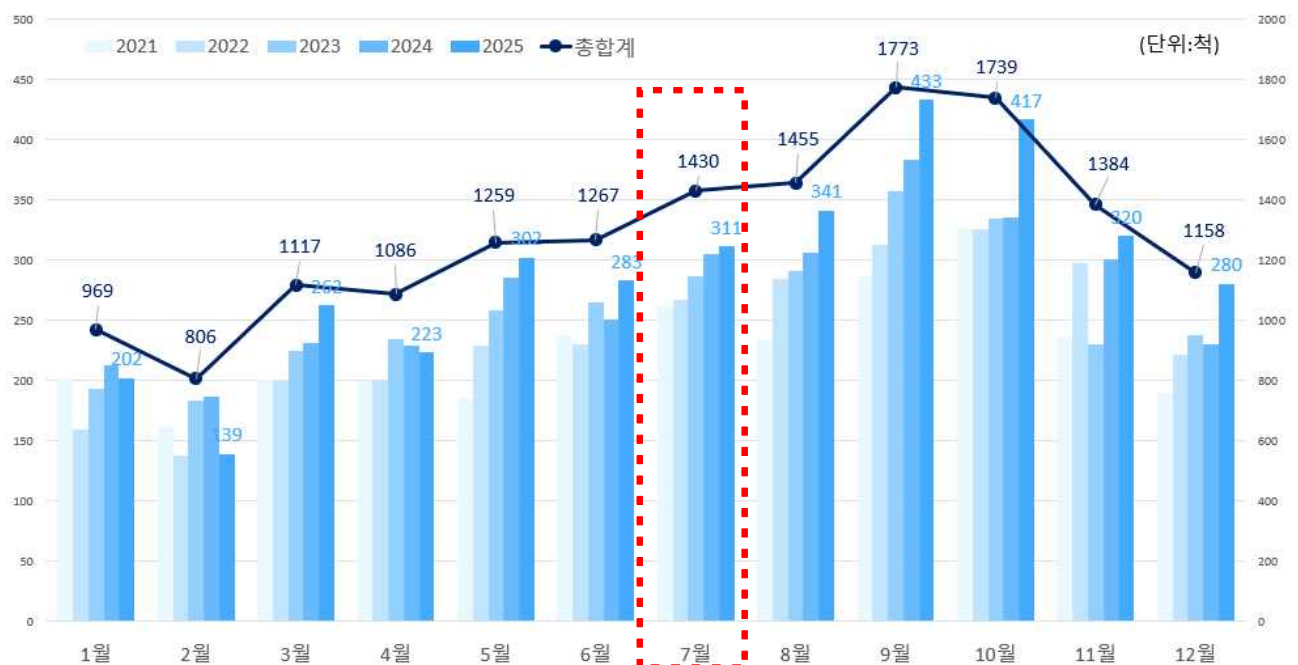
* 통계 산출 기준은 2025년도 이전은 5개년, 2025년도 이후는 10개년을 적용

□ 최근 5년간 월별 해양사고 현황(2021~2025)

○ 주요사고 유형별 해양사고 현황('21~'25년)



○ 월별 해양사고 현황('21~'25년)



어황정보

제공: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8월 어황정보

○ 연근해 어업생산동향(표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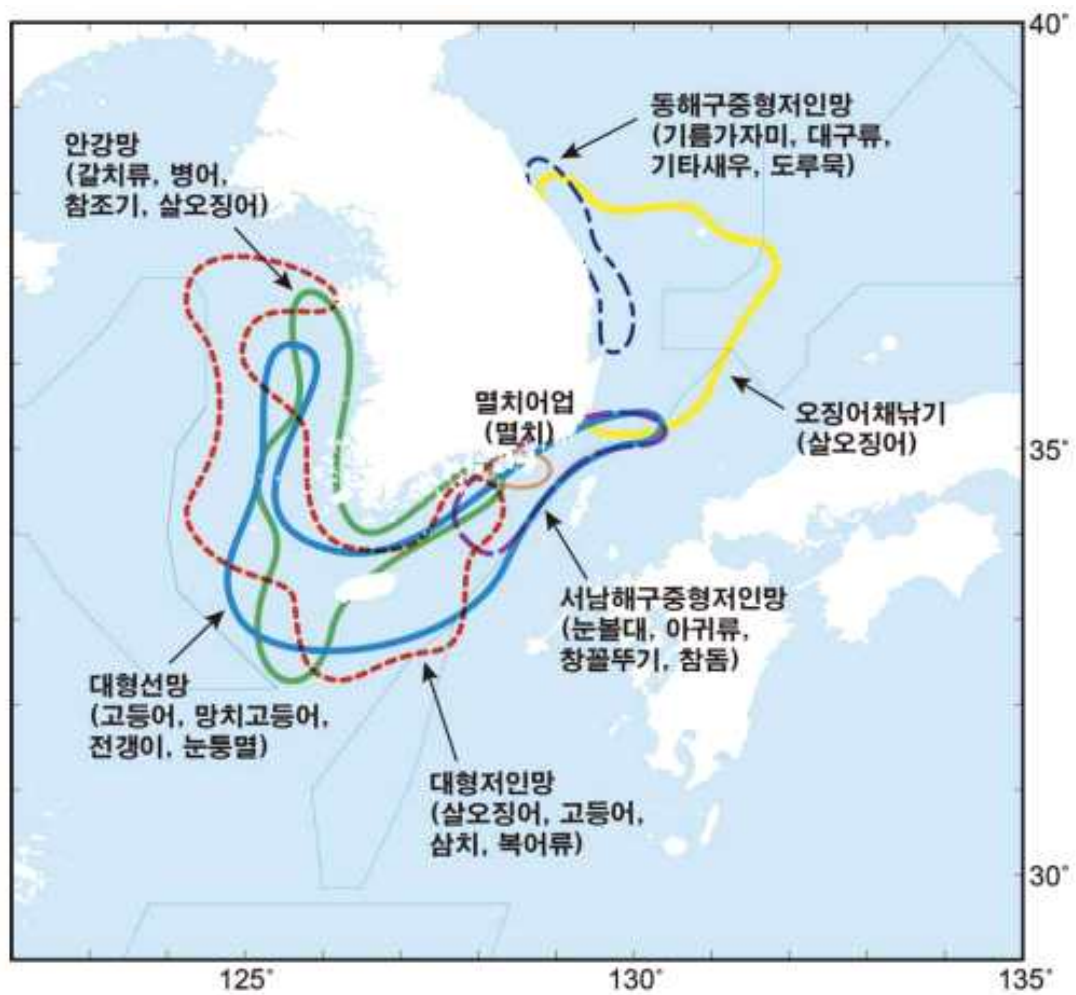
- 7월(기간: '26.6.21.~'26.7.18.)의 주요 어종별 어획량을 살펴보면, 고등어, 멸치, 갈치는 평년(최근 5년 평균) 대비 증가하였고, 전갱이, 살오징어, 참조기, 삼치는 평년 대비 감소하였다.

○ 8월 주요 어망별 어황 전망

- **대형선망:** 7월(기간: '26.6.21.~'26.7.18.)의 주요 어종별 어획량을 살펴보면, 고등어, 멸치, 갈치는 평년(최근 5년 평균) 대비 증가하였고, 전갱이, 살오징어, 참조기, 삼치는 평년 대비 감소하였다.
- **근해채낚기:** 동해 중부와 동해 남부 해역에서 살오징어를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어황은 전·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선권현망:** 거제도와 남해군 앞바다를 중심으로 멸치를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어황은 전·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근해안강망:**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해역에서 갈치, 병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 지겠다. 어황은 전·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인망어업**
 - **쌍끌이대형저인망:** 서해 남부와 서해 중부 해역에서 살오징어, 고등어, 삼치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 **외끌이대형저인망:** 제주도 남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남해 서부 해역에서 황돔, 창꼴뚜기, 참조기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어지겠다.
 -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동해 남부를 중심으로 남해 동부 해역에서 눈볼대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강원·경북 해역에서 기름가자미, 대구류, 새우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 **전체 저인망어업의 어황**은 전·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어종별 어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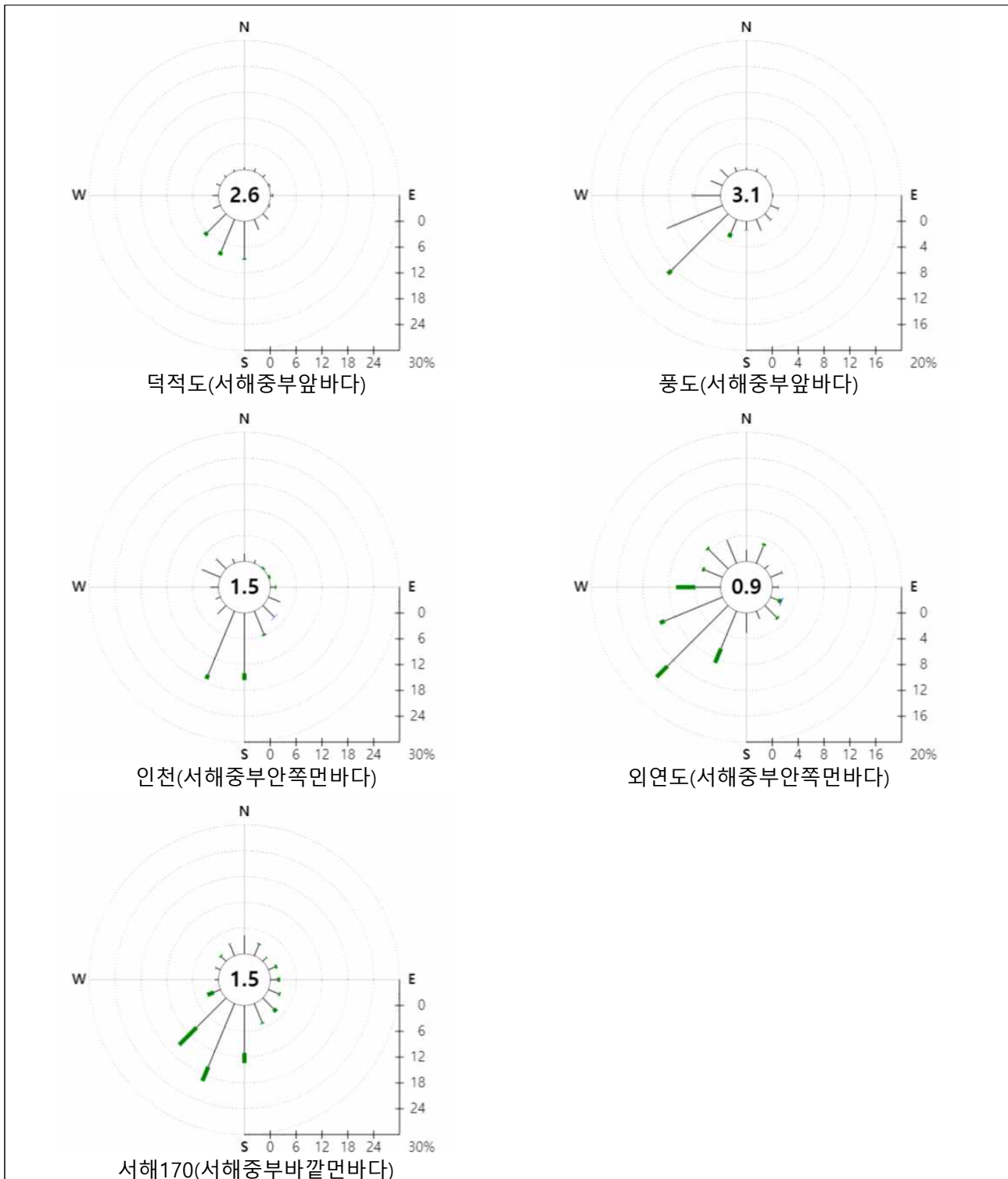
고 등 어	남해 서부와 제주도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조업은 대형선망어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다. 어황은 전년 대비 부진하겠으나, 평년 대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갯 이	제주도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남해 서부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 되겠 으며, 조업은 대형선망어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다. 어황은 전.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살오징어	서해 남부를 중심으로 서해 중부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조업은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중심으로 근해자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등에서 이루어지겠다. 어황은 전.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멸 치	거제도와 남해군 앞바다를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조업은 기선 권현망어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다. 어황은 전.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갈 치	남해 서부와 서해 남부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금어기 종료에 따라 근해안강망어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어황은 전.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 조 기	제주도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남해 서부와 서해 남부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금어기 종료에 따라 근해자망어업을 중심으로 근해안 강망어업 등에서 본격적인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어황은 전.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 치	서해 중부를 중심으로 서해 남부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기 시작 하겠 으며, 조업은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다. 어황은 전년 대비 양호 하겠으나, 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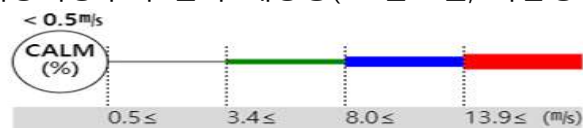
< 2026년 8월 어업별 예상어장도 >

【부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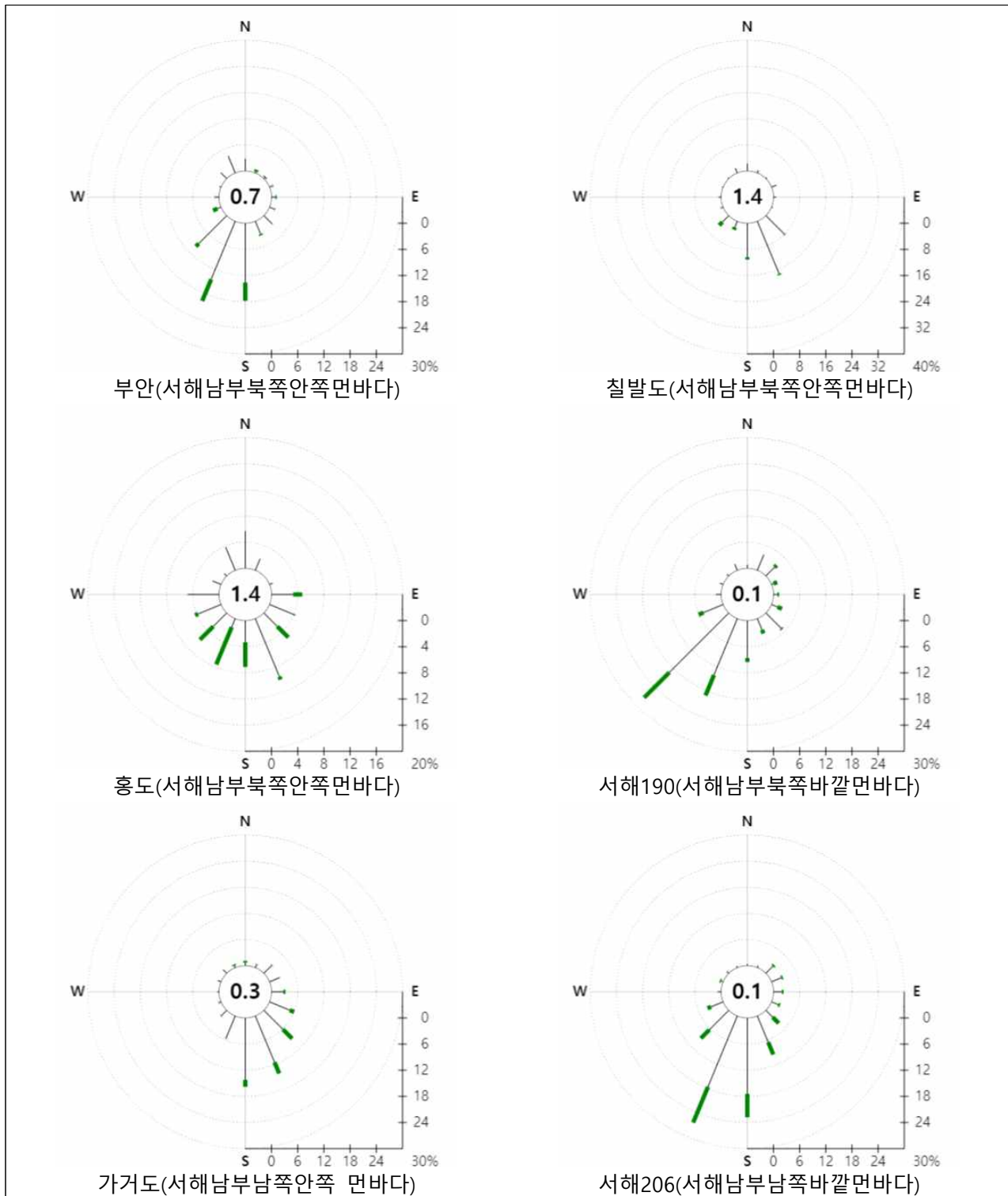
2025년 8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중부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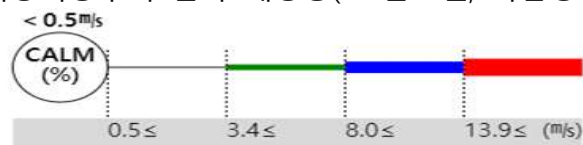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5년 8월,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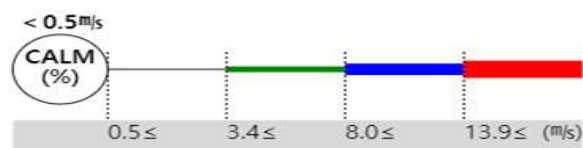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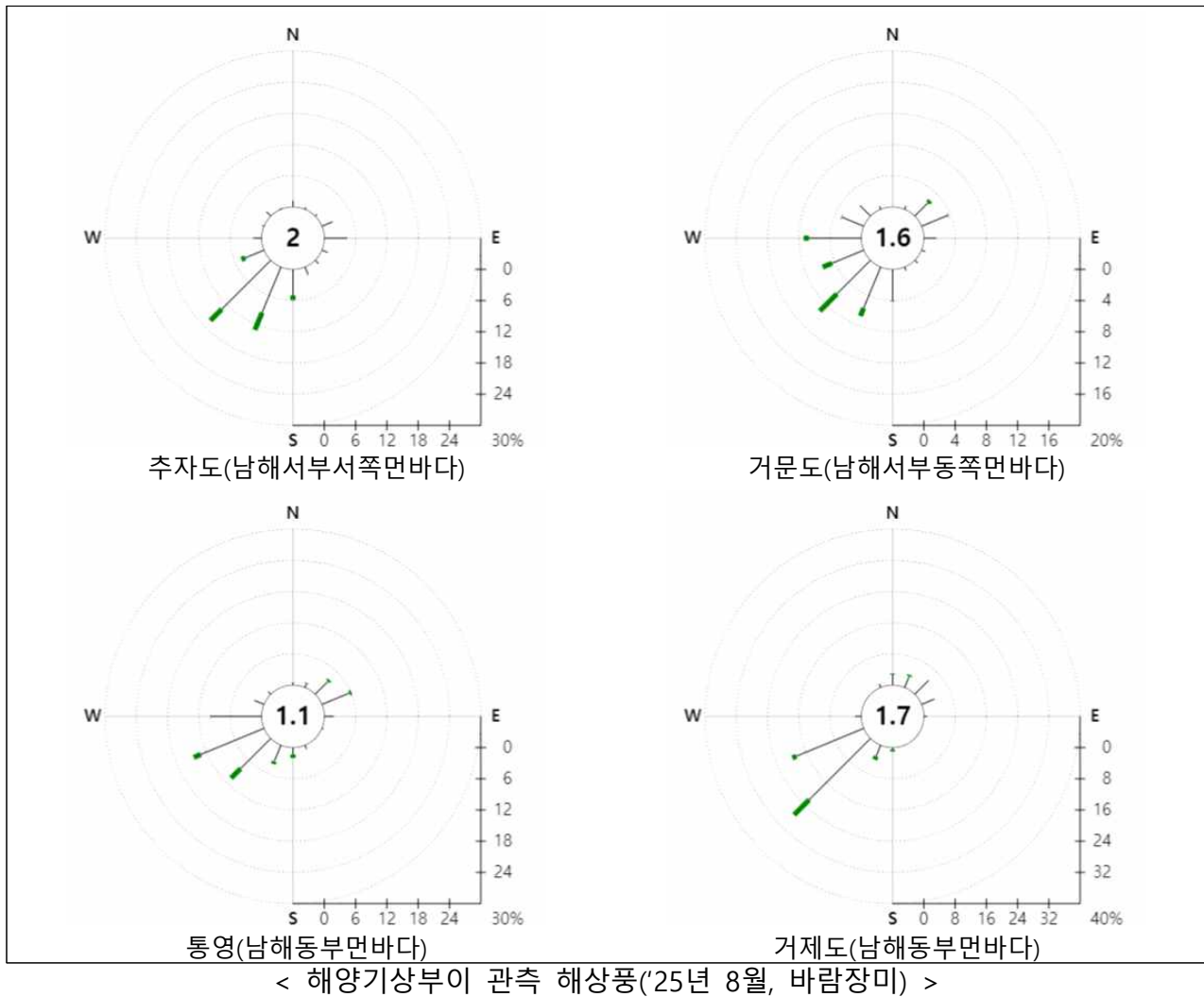
2025년 8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남부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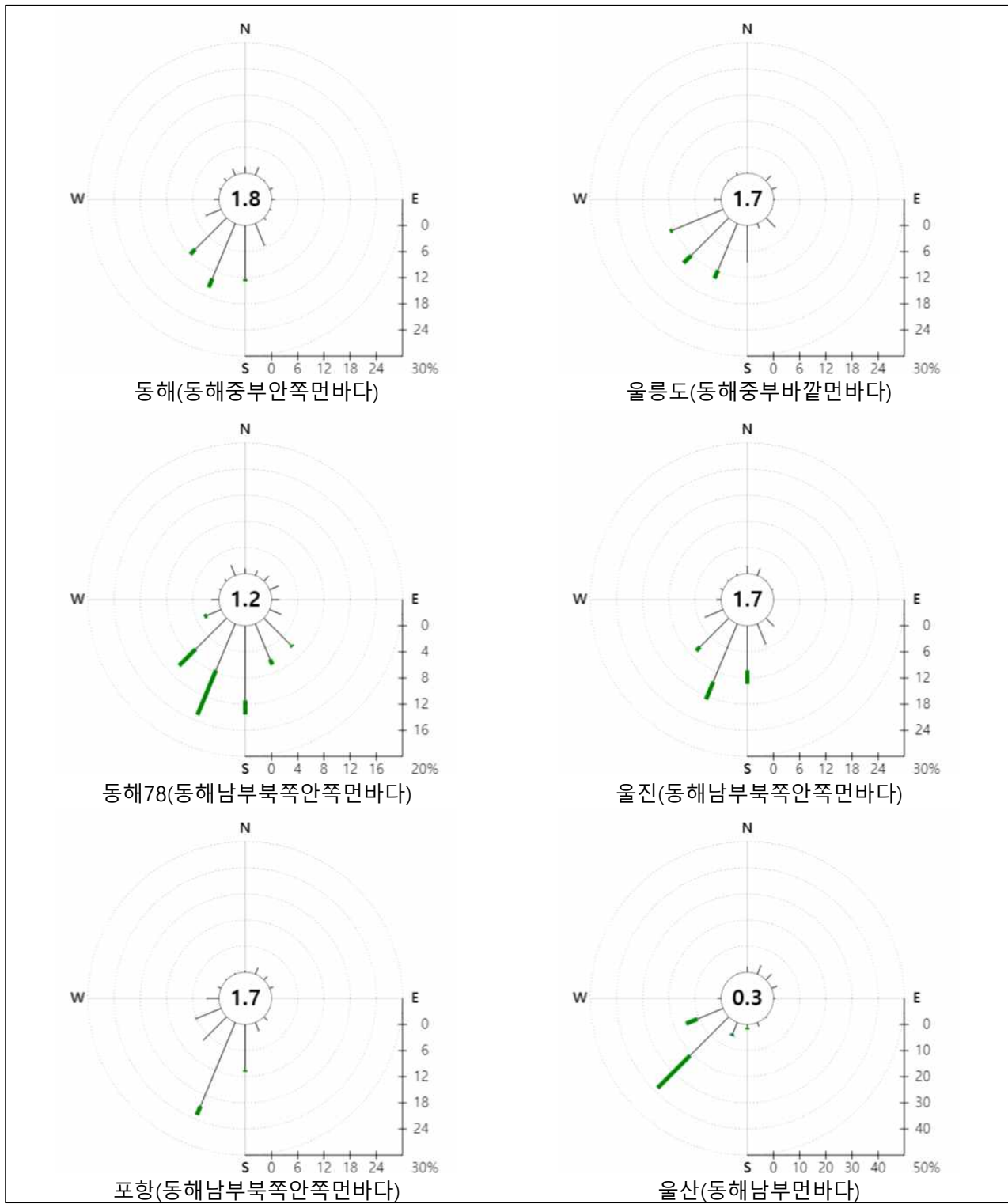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5년 8월,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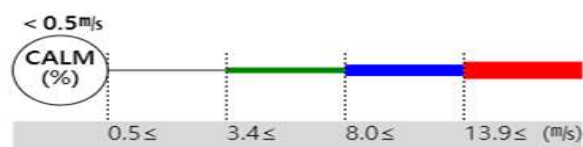
2025년 8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남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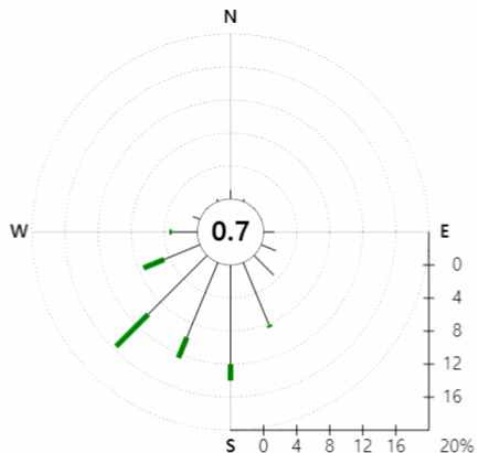
2025년 8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동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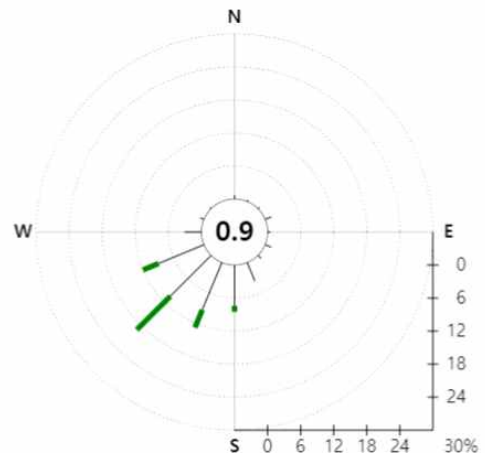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5년 8월,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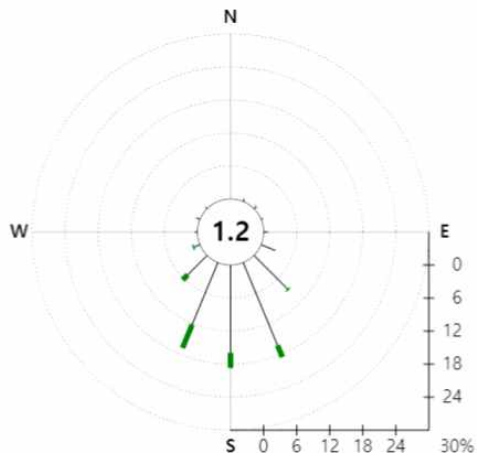
2025년 8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제주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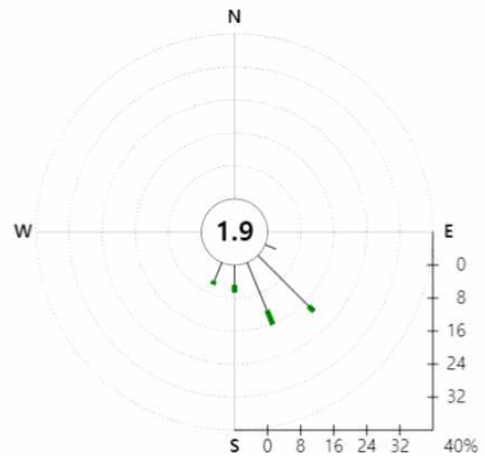
마라도(제주도남서쪽안쪽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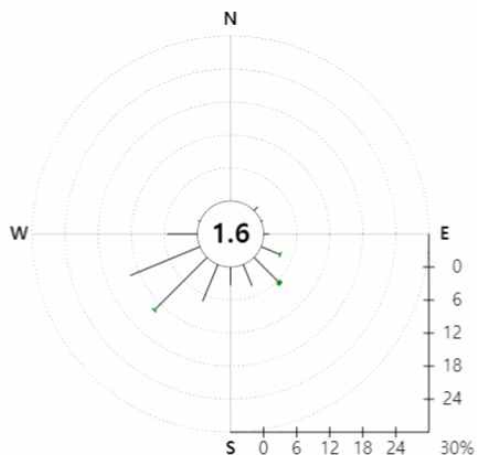
서귀포(제주도남동쪽안쪽면바다)



남해239(제주도남쪽바깥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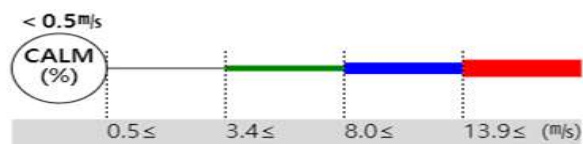


남해465(제주도남쪽바깥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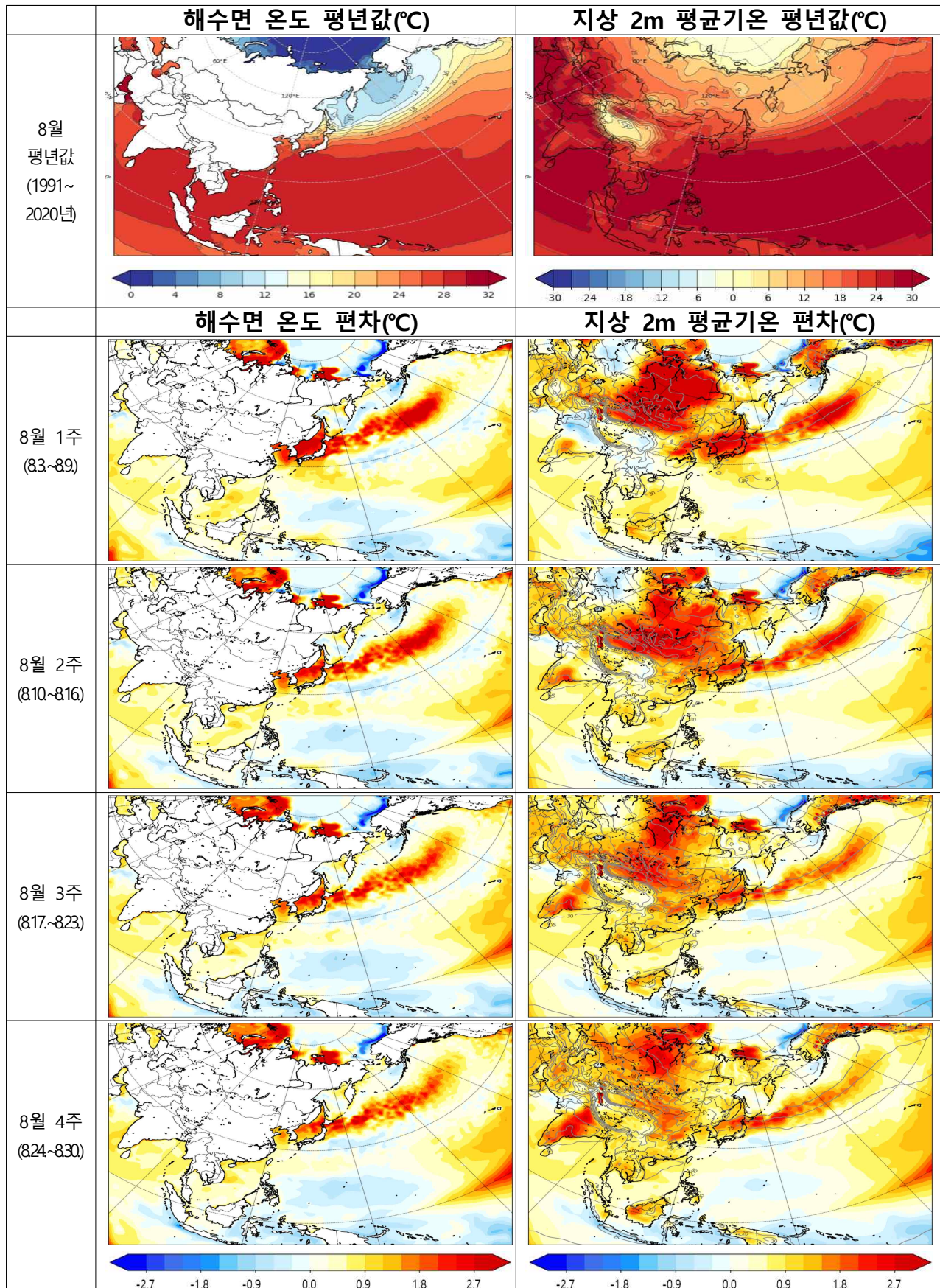
남해244(제주도남동쪽안쪽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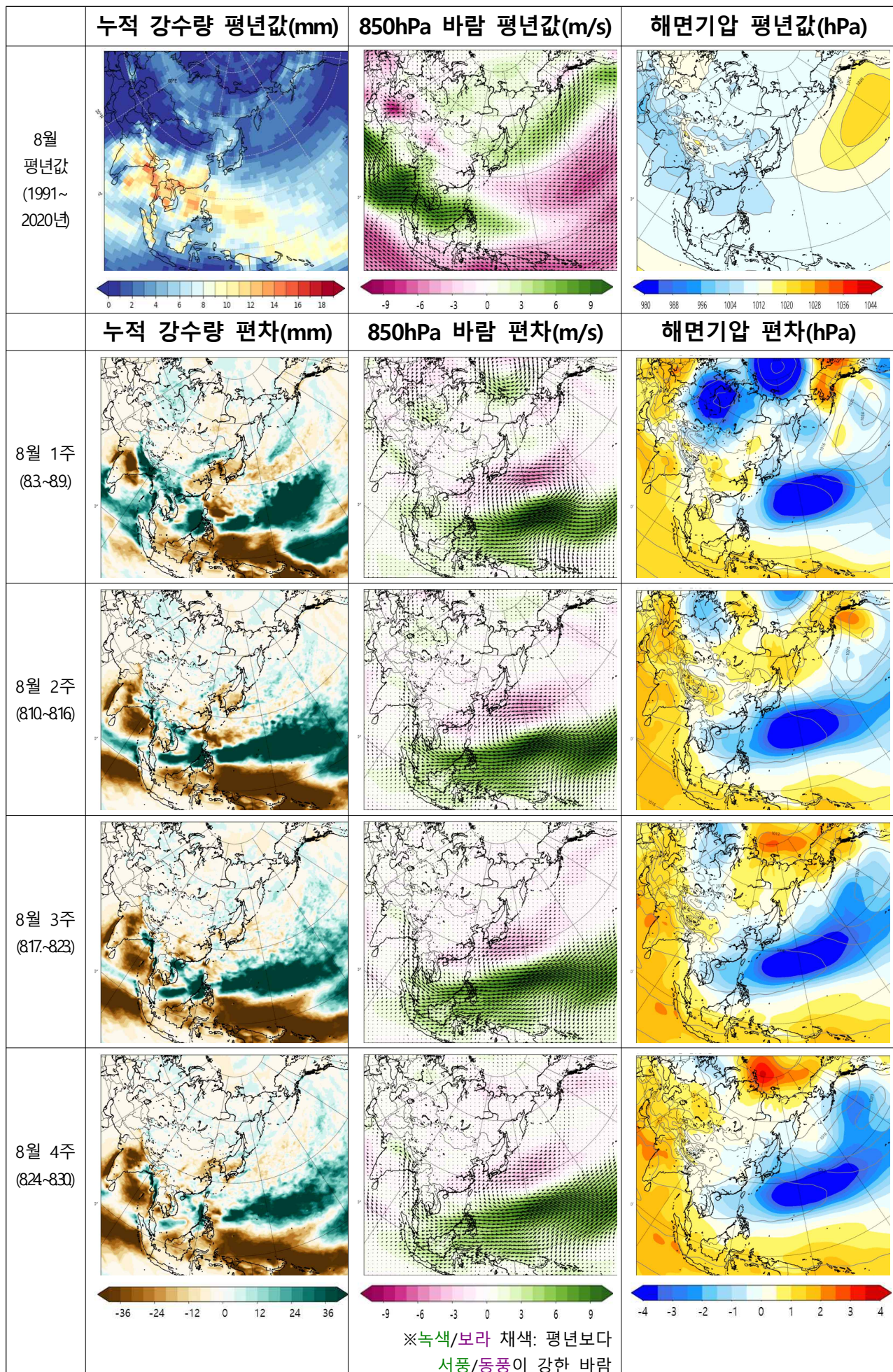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5년 8월, 바람장미) >



【부록 2】

GloSea6 모델 예측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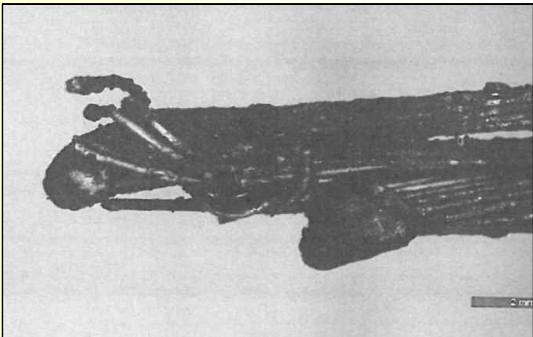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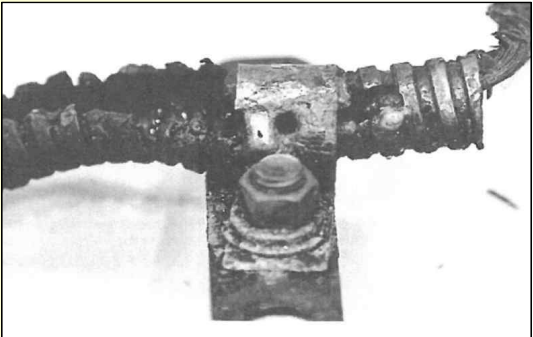


【부록 3】

주요 해양 안전사고 사례

제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어선 A호 화재사건 정비 소홀, 전선 단락

사 건 개 요	선박	A호: 어선, 24톤, 길이 22.61미터
	일시	2018년 10월 30일 15시 25분경
	장소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태문암등표로부터 방위 96도, 거리 약 4.58마일 해상
	피해 상황	A호는 여수시 임포항을 출항하여 정치망 어장에 도착하여 정치망 어장 부표에 계류줄을 매어 놓고 조업을 시작하던 중 선미 갑판에서 작업하던 선원이 기관실에서 화재를 발견하였으나, 초기 진화에 실패하여 선박은 전소되고 선장은 경미한 화상을 입은 사건임.
	날씨	북서풍 초속 13~15미터, 파고 2~2.5미터, 시정 3해리, 맑은 날씨
원인		이 화재사건은 조업 중 선장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축전지 충전용 전선이 단락하며 발생한 불꽃과 열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이 선박의 침몰은 선장의 기관실 감시 소홀과 초기 대응 실패로 화재 확산 후 진화과정에서 선체 훼손 및 해수 유입으로 부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임.
교훈		○ 기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고온의 열과 진동 등으로 노후·손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누전이나 단락 등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크므로 주기적인 점검과 정기적인 절연저항 측정을 통해 절연상태 및 체결 상태 등을 확인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 선박의 기관실 화재는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비상대응훈련이 필요 하지만, 초기진화에 실패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 선박에서의 기관실 화재는 산소의 공급만 차단하여도 화재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기관실로 통하는 모든 통풍구를 차단하여야 한다.
관련 사진		 
		A호 인양 후 기관실 내 축전지 충전용 전선상태

2. 모터보트 B호 · 수상오토바이 C호 충돌사건

수상레저기구, 선원의 상무

사건개요	선박	B호: 모터보트, 1.83톤, 길이 7.3미터 C호: 수상오토바이, 길이 3.5미터
	일시 장소	2025년 6월 28일 14시 33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 방어리항 북방파제끝단으로부터 방위 약 117도, 거리 약 0.57해리 해상
	피해 상황	B호와 C호는 함께 포항시 구룡포 해수욕장을 출항한 후 목적지인 영덕군 강구항을 향해 포항 연안을 따라 운항 중, C호가 B호로부터 4시 방향 약 2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거의 같은 속도와 같은 침로로 나란히 운항 하던 중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갑자기 속력을 높여 B호 진로 전방으로 대각도 좌현 변침하며 들어와 횡단을 시도하였고, B호는 음악을 크게 틀 채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며 고속으로 운항 중 C호가 자기 선박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며 횡단을 시도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충돌 직전해야 이를 알아차려 뒤늦게 좌현 변침하며 피항하였으나 결국 충돌하여 C호 운항자는 사망하였고, 양 선박 모두 파손된 사건임.
	날씨	남서풍 초속 3~5미터, 파고 0.2~0.3미터, 시정 3해리, 흐린 날씨
원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수상오토바이 C호가 모터보트 B호의 우현 뒤쪽에서 나란히 운항하던 중 갑자기 속력을 높여 B호의 진로 전방으로 횡단을 시도하다 발생한 것이나, B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임.	
교훈	- 모든 선박(기구)은 경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대전화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큰소리로 틀거나 하는 등 경계에 장애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 모든 선박(기구)은 다른 선박(기구)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선박 등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해야 한다.	
관련 사진	  손상 부위(점 원)	
	모터보트 B호 및 수상오토바이 C호 손상 부위	